

윤석열 재구속...외환 혐의 등 여죄 수사 탄력

법원 “증거 인멸 우려”...내란특검 수사 개시 22일만에 다시 구속

특검 오늘 첫 조사...한덕수·강의구 등 내란공범 혐의 수사도 속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구속영장 발부로 124일만에 재구속됐다. <관련기사 2·3·4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3월 구속돼 52일 동안 수감생활을 하다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났지만, 내란특검 수사개시 22일만에 추가혐의로 다시 영어의 몸이 됐다.

특검은 윤 대통령측에 11일 오후 2시 출석을 요구해 아직 추가되지 않은 외환 혐의 등에 대한 여죄에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 이외에도 해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도 윤 전 대통령이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이들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 10분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는 전날 오후 2시 20분께 부터 6시간 40여분 동안 진행됐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만 소집함으로써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하고, 불법계엄 후에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계엄 선포인 것처럼 속여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했으며, 수사를 대비해 내란 공범들의 비호폰 기록 삭제제를 지시했다는 혐의 등이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특검이 제시한 관계자 진술과 물적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계엄 선포 선포문 폐기와, 비호폰 삭제 지시 등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는 특검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재 구속되면서 특검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외환혐의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지만,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서 혐의가 빠졌다는 점에서다. 다만 외환 혐의에 대해서는 북한과 내통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면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 관측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에 협조할 지는 미지수다. 또 구속적부심을 통한 석방 신청 등 추가 법적 대응 방안도 남아있다.

특검은 최대 20일간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수사 후 구속상태로 기소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소 뒤에는 최대 6개월 간 구속이 가능하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10일 브리핑을 통해 “오늘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 관계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내일 조사할 예정”이라며 “향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10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는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혐의(허위공문서 작성)의 공범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이 적시돼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은 10일 새벽 2시께 발부됐다. <사진공동취재단>

KIA ‘잇몸 야구’ 감동 드라마...후반기 더 치고 올라간다

김도영·나성범 등 주전 줄부상

김호령·오선우·고종욱·박민

‘잇몸’들 깜짝 활약 뜨거운 박수

KIA 타이거즈의 전반기, 뜨거운 질주는 없었지만 가슴 따뜻한 감동이 남았다.

올 시즌을 앞두고 KIA는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다. 지난해 압도적인 우승을 이룬 전력 이 그대로 유지됐고, 경험이라는 귀중한 자산도 있었다.

막상 뚜껑을 열자 시즌은 기대와 달랐다. 지난해 선발진을 뒀던 부상이 이번에는 야수진에 영향을 미쳤다.

‘MVP’ 김도영이 개막전부터 허벅지를 붙잡고 쓰러졌고 김선빈, 나성범도 부상으로 자취를 감췄다. 승리를 지키던 불펜도 요동쳤다.

불펜에서 활약했던 박도규가 9경기를 소화한 뒤 수술대에 올랐고, 키움에서 영입한 ‘국가대표 출신’ 조상우의 초반 움직임이 좋지 못했다.

불펜의 핵심 전상현도 기복을 보이면서 KIA는 하위권에서 힘겨운 봄날을 보냈다.

하지만 주전들의 부상은 칼을 갈던 선수들에게는 기회가 됐다.

오선우는 시즌 첫 경기였던 4월 14일 SSG전에서 홈런을 날리고 그라운드를 돌았다. 이후에도 견고한 타격을 이어간 오선우는 1루와 외야를 오가면서 입지를 넓혔다. 김도영, 김선빈이 동시에 빠진 내야에서도 경쟁을 통해 선수들이 성장했다. 지난 시즌 전천후 백업으로 주목받은 김규성이 그 분위기를 이어갔고, 박민도 수비에서 진가를 보여주면서 6월 승리 사냥에 힘을 보탤었다.

김호령은 ‘감동 드라마’의 주인공이 됐다.

2015년 동국대를 졸업하고 10라운드 102순위 선수로 KIA 유니폼을 입은 김호령은 수비 하나로 프로벽을 넘은 ‘10라운드의 전설’이다.

‘수비 달인’으로 통했던 그는 올 시즌에는 자신의 강점이자 한계였던 수비 틀을 깨고 새로운 김호령이 됐다.

자신감 있는 스윙으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김호령은 지난 5일 롯데전에서는 생애 첫 밀

티포를 장식했다. 이날 기록한 두 번째 홈런은 개인 1호이자 팀의 시즌 1호 만루포였다.

타석에서도 존재감을 발휘한 김호령은 33살에 처음 올스타전에 출전한다.

마운드에서도 ‘10라운드’의 감동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배정투와 정교한 변화구에도 ‘너무 느린 공’ 탓에 지난해 신인드래프트에서 10라운드 96순위로 KIA에 지명된 성영탁이 그 주인공이다. 그는 5월 20일 KT를 상대로 프로 데뷔전에 나서 17.1이닝 무실점을 이어갔다. 1989년 조계현(13.2이닝)을 넘어 타이거즈 데뷔 최다 무실점 이닝 기록을 새로 쓴 성영탁은 KBO리그 3위 기록까지 바꾸면서 ‘성적은 지명순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줬다.

LG를 상대했던 6월 마지막 경기에서는 15년 차 고종욱이 3안타 활약 뒤 눈물의 인터뷰를 하면서 사람들을 울리기도 했다.

주전들의 부상으로 얻은 기회를 간절함으로 붙잡은 ‘잇몸’들의 활약에 팬들은 전반기 아쉬운 성적에도 후반기를 기대하며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대통령실 광주·전남 현안 ‘RE100 산단’ 특별법 제정기로

대통령실이 광주·전남 현안인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관련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추진방안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RE100 산단’에 위치한 기업은 풍력이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만 100% 사용해 기업활동을 하도록 하겠다는 게 대통령실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RE100 산단의 경우) ‘규제 제로’ 지역이 되도록 검토해달라”며 “교육 정부 관련 지원도 더 획기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산단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전기료 할인 혜택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해상 풍력·태양광 산업을 전용 부지와 배후단지를 갖춘 생태계로 조성하고 전남·전북 지역에 RE100 산업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실장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들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최우선 정책과제로 특별법 제정 및 산단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서남권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 있음에도 전력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크다”면서 “이로 인해 국가적 비효율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The new EQE SUV

누구도 예상 못한 아우라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원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인중 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원 서비스센터 사고수리 062)942-7200 / 일반정비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전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EQE 350 4M SUV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m/kWh) : 4.1(도심: 4.3, 고속도로: 3.9) 1회 충전거리(km) : 445, 공차중량(kg) : 2540, 배터리 용량(kWh) : 90.56
· EQE 500 4M SUV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m/kWh) : 4.1(도심: 4.2, 고속도로: 3.9) 1회 충전거리(km) : 449, 공차중량(kg) : 2590, 배터리 용량(kWh) : 96.5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